

5. 2024. 4. 24. 수 15시까지 바다와 나비 김기림 아무도 그에게 수심(水深)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 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. 청(靑)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. 삼월(三月)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	6. 2024. 4. 24. 15시까지 파 도 허형만 파도를 보면 내 안에 불이 붙는다 내 쓸쓸함에 기대어 으깨지며 부서지며 망망대해 눈물꽃 피워내는 파도를 보면 아, 우리네 삶이란 눈물처럼 따뜻한 희망인 것을
7. 2024. 4. 24. 수 15시까지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 같이는 복효근 그걸 내 마음이라 부르면 안 되나 토란잎이 간지럽다고 흔들어대면 둥글둥글 투명한 리듬을 빚어내는 물방울의 그 둥근 표정 토란잎이 잠자면 그 배꼽 위에 하늘 빛깔로 함께 자고선 토란잎이 물방울을 털어내기도 전에 먼저 알고 흔적 없어지는 그 자취를 그 마음을 사랑이라 부르면 안 되나	8. 2024. 4. 24. 수 15시까지 녹을 닦으며 허형만 새로이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슬어 있는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슬어 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. 나는,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. 비늘처럼 총총히 돋혀 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그리 살아온 마흔세 해 수많은 불면의 축수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슬어 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.